‘순이 삼촌’ 비장미 더하고 러닝타임 줄인다

작년 초연 창작오페라 보완
9월 17~18일 제주아트센터
12월 30일엔 경기아트센터
김지현·오능희·강혜명 주역
순이 삼촌 ‘광란의 아리아’ 등

김지현

오능희

강혜명

비장미는 더하고 러닝타임은 줄인다. 지난해 11월 초연작을 보완해 새롭게 무대에 올리는 제주4·3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원작 현기영, 대본 김수열, 예술총감독 강혜명)이다.

제주시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기획한 이번 공연은 9월 17일 오후 7시와 18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 12월 30일 오후 7시 경기아트센터로 이어진다. 경기아트센터가 이번에 공동기획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배경이다. 제주를 넘어 수도권 지역에 오페라 장르로 4·3을 알리는 무대로 준비됐다. 내년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관 공연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순이 삼촌’은 새로운 음악에 연극적 요소를 추가했다. 주인공인 순이 삼촌이 부르는 ‘광란의 아리아’가 대표적이다. ‘순이 삼촌’의 작곡을 담당했던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최정훈 작곡가가 가사가 없는 보칼리즈 형식으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절규하듯 표현해 이번에 첫선을 보인다.

무대 세트와 출연자들의 동선도 간결하게 정리했고 총 공연 시간은 2시간 45분으로 다소 단축했다. 조명과 음향도 더욱 생동감있게 구성했다. 극의 배경이 된 1949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4·3을 다룬 강요배의 그림, 강정효의 사진도 추가로 활용한다.

순이 삼촌 역은 3회 공연마다 매번 다른 얼굴이 등장한다. 제주 공연 첫날에는 2017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주역상 수상자로 뉴욕 카네기홀, 이태리 푸치니페스티벌 등 유럽, 미국, 중국에서 활약 중인 소프라노 상명대 김지현 교수가 나온다. 둘째 날에는 제주 출신인 오능희 제주음악협회 회장이 연기한다. 연말 경기아트센터 공연은 초연 당시 순이 삼촌으로 분했던 강혜명 성악가가 출연한다. 이들과 함께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극단 가람, 제주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 출연진만 약 210명에 이른다. 연주는 김홍식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도립 제주교향악단이 맡는다.

관람료 무료.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객석의 50%만 개방한다.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다. 문의 728-1509. 진선희기자

한 시대의 기록이 된 흑백 풍경들

라이카사 강병수 기증사진전
제주대박물관 ‘서귀포를 담다’

열다섯 살에 사진을 시작한 그는 서른 살에 서귀포라이카사를 인수해 50년 넘게 운영했다. 카메라가 귀했던 시절엔 서귀포 지역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촬영이 대부분 라이카사에 맡겨졌고 그의 손을 거쳐 그 시대가 기록됐다. 세상과 이별하기 전 그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 파일 등으로 꼼꼼히 정리해 도내·외 기관에 기증했다. 사진가 강병수(1946~2019) 선생이다.

제주대박물관이 지난 1일부터 ‘서귀포를 담다’란 이름으로 열고 있는 전시도 그의 기증사진으로 꾸며지고 있다. 기증 작품 500여 점 중에서 60~70년대 서귀포를 보여주는 사진을 중심으로 40점을 선별해 공개 중이다.

‘서귀-제주 횡단도로 개통식’, ‘국민학생들의 소나무 송충이 잡이’, ‘농번기 탁아소’, ‘산방산 앞 도로 포장’, ‘보리밭 밟기-4H 행사’, ‘밭갈이 시합과 응원단’, ‘하논 벼농사’, ‘우시장 개장-표선’, ‘테역밭을 일궈 밭 만들기-식량증산운동’, ‘고구마 줄기 심기-어린이도 일손 도와’, ‘여예비군-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등 제주대박물관이 한지에 인쇄해 내건 흑백사진들은 관광개발, 새마을운동 등으로 제주 사회가 전환점을 맞는 시기의 풍경들이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관혼상제 장면, 이중섭이 거닐었을 서귀포 원도심 골목, 서귀포 천주교회를 찾았던 김수환 추기경도 그의 사진 속에 자리했다. 유족들이 2020년 박물관에 기증한 카메라 100여 점 중에서 20여 점도 함께 나왔다.

강병수 기증사진전에 나온 ‘산방산 앞 도로 포장’(1960년대)

전시는 이달 17일까지 박물관 1층 중앙홀. 토·일요일엔 문을 닫는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상 관람도 가능하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성폭력 관련 의혹 사진 작품 철수”

도립미술관과 기당미술관
문제 제기에 B씨 작품 치워

제주 공립미술관에 “성폭력 가해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며 작품 철수를 요구한 일과 관련 제주도립미술관이 해당 작품을 전시장에서 내렸다.

6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엔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에) 전시 중인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에는 성폭력 가해자인 사진가 B씨의 작품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다”며 작품을 내리고 사과문 게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도립미술관은 답변을 통해 “성폭력 관련 의혹이 제기 되었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관람객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도립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귀포시에 있는 또 다른 공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도 해당 작가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치우기로 했다. 기당미술관에서는 도내 공립미술관 소장품과 연계한 ‘날씨의 까닭’ 주제전에 B작가의 오름 사진이 전시 중이었다. 진선희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1)

귤 창고

황학주 시인이 8년째 제주에 살며 보고 만난 이웃들, 제주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담백하고 편안한 글에 풀어놓습니다. 매주 화요일 ‘황학주의 제주살이’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오전 열 시 1t 트럭이 귤 농장 안으로 들어와 멎는다. 나는 우리 집 2층에서 귤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인이 내리자, 적재함이 빈 흰색 트럭은 귤밭 사이로 들어가 이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 품이 넓은 감색 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은 여인은 길을 따라 걸어와 곧장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오십 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저 농장 주인 부부와 여러 번 집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농장이 우리 집과 이웃하고 있는지라 평소 눈인사 정도는 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말도 하고 지낸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여인은 서글서글한 형이지만, 두 사람 다 귤 농사로 잔뼈가 굵은 농부들이라는 것을 몸 전체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윗마을 와흘리에 산다. 와흘리는 메밀밭으로 유명한 마을이고, 나는 그 드넓은 돌밭에 메밀이 자라 올라 촘촘히 박히고 이내 하얀 메밀꽃 천지가 되는, 황무함과 생명감이 뒤섞이는 시간의 와흘리를 좋아한다. 점심때가 되자 키 크고 구부정한 남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아마도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먹고, 그런 후엔 언젠가 나도 본 적이 있는 분홍색 텀블러에서 커피를 따라 먹는지 모르지.

귤밭엔 귤나무와 귤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적과 나른함과 귤 잎에 반짝이는 햇빛이 있고, 자세히 보면 뿌려져 있는 퇴비, 잡풀과 돌멩이, 나무토막과 떨어진 잎, 사방으로 연결된 급수관과 스프링클러, 암반들이 있고 암반 근처 빈 땅엔 달리아가 달리아 옆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다. 거기에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생물들이 어김없이 제 방식으로 제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지나다니고, 울고 노래하며 함께 있다.

이 농장에 창고는 저것 한 채뿐이다. 다른 창고와 별반 다를 바 없으나 창문이 있는 게 특색이며, 돌 사이사이 흰색 시멘트를 꼼꼼히 넣어 지어진 것으로 옛 돌집 맛과 새뜻한 느낌을 동시에 준다. 나는 창고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캡모자를 쓴 남자가 창고에서 나와 다시 귤밭 사이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솟은 해가 머리 위를 지나 산 위로 점점 이동하지만 여인은 창고에서 꼼짝않고 나오지 않는다.

귤밭엔 나무와 열매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제 방식으로 울고 노래하며

길에서는 귤나무들에 가려 창고 출입문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다. 창고 창문이 있는 쪽 벽면은 우리 집 2층에서 잘 보인다. 그 창고 안 한 켠은 넓은 책상과 꽤 많은 책들로 차 있다. 여인은 귤밭이 언덕을 비탈져 내려가 바다 앞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창가에 아직 앉아 있다. 아마도 오늘은 천 평이 넘는 귤밭에 일생 매달려 살아온 여인에게 휴식이 주어진 어느 한 날일 것이다. <시인>

황학주 시인은 1987년 시집 ‘사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갈 수 없는 쓸쓸함’, ‘늦게 가는 것으로 길을 삼는다’, ‘너무나 얇은 생의 담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 등이 있다.

문학관 개관 기념 작품 공모

제주도는 10월 제주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개관 기념 문예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작품 공모는 제주문학관 개관을 도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를 소재로 한 자유 주제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채택된 작품은 제주문학관 각종 자료와 행사 시 활용된다. 신청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취 축 득
CONGRATULATIONS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부 은 주
제주사대부설고 영어교사, 제주대학교 강사
남녕고 14회 졸업,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취득(2021.8.27.)
부 : 故부달천 · 모 : 강순희(연포낙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56회 공인회계사

김 재 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 재학중)
[부 : 김치면(제주도립요양원 사무국장) · 모 : 부영숙]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우도면중석문중회
회 장 김 항 근 외 문중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회장

이 용 탁
(동심초 제주여성회 특별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심초 제주여성회
회 장 임 강 자 외 회원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희 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김성훈 · 김오정 · 김오진
김순영 · 김오철 · 변응수